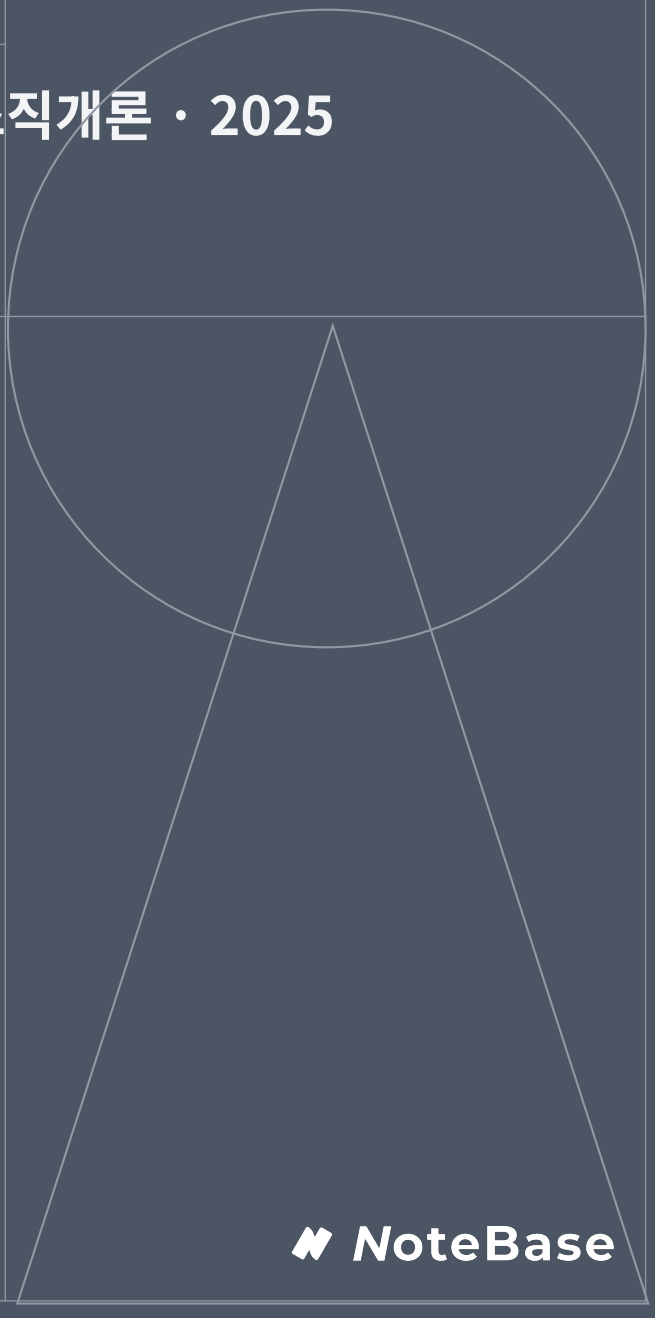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5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5

문 1. 개념과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념을 세분하면 내포는 증가하는 반면에 외연은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ㄴ. 구분을 할 때는 반드시 복수의 구분원리에 의해 구분해야 한다.
ㄷ. 구분지는 구분의 결과로 생겨나는 각각의 종개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ㄴ의 '반드시 복수의 구분원리'는 잘못된 설명이다. 구분할 때는 **동일한 단계에서 하나의 구분원리**를 적용해야 하며, 여러 기준을 섞으면 구분지 사이에 중복이 생길 수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내포는 개념을 이루는 속성이며, 외연은 그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이다. 개념을 세분하면 속성이 추가되므로 **내포는 증가하고 외연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좁히면 '변이 세 개'라는 속성이 추가되고, 사각형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X: 구분원리는 개념을 나누는 기준이다. **동일한 구분 단계에서는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를 '한국어 도서'와 '역사 도서'로 나누면 언어와 주제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섞여, 한국어로 쓴 역사 도서가 두 구분지에 모두 속한다. 따라서 '반드시 복수의 구분원리'는 '동일한 단계에서 하나의 구분원리'로 고쳐야 한다. 이후의 하위 단계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ㄷ. O: 구분은 포괄적인 상위 개념인 유개념을 그 아래의 종개념들로 나누는 것이다. 이때 나누어지는 유개념은 피구분체이고, **구분 결과로 생기는 각각의 종개념**은 구분지이다. 구분원리는 나누는 기준이고 구분지는 나눈 결과라는 차이가 있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KDC 제6판에 제시된 분류의 일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는 1차적으로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2차적으로 형식에 따라 세분한다.

② 다른 저자의 학설이나 연구 결과를 비판한 문헌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저작에 분류한다.

③ 구체적인 주제와 추상적인 주제를 함께 다룬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 아래에 분류한다.

④ 문헌이 두 주제 간의 원인과 결과를 다룬 것일 경우는 결과로 된 주제에 분류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다른 저자의 학설이나 연구 결과를 비판한 저작은 원칙적으로 **비판한 학자**에 분류한다. 비판 대상인 저작에 분류하는 것과 구별하며, 단순한 토론이나 비판은 비평된 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료는 먼저 **무엇을 다루는가라는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그 주제를 표현하는 형식에 따라 세분한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의 사전은 그 주제로 분류한 뒤 사전이라는 형식을 반영한다.

② X: 다른 저자의 학설이나 연구 결과를 비판한 저작은 **비판한 학자**에 분류한다. A가 B의 학설을 비판한 저작이라면 비판을 수행한 A에 분류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저작에 분류한다'는 표현을 고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토론이나 비판은 비평된 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③ O: 구체적인 주제와 추상적인 주제를 함께 다룬 자료는 **구체적인 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추상적인 논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다루는 구체적인 주제를 우선하여 분류한다는 뜻이다.

④ O: 두 주제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다룬 문헌은 **결과로 나타난 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A가 원인이 되어 B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관계를 다루었다면, 분류의 기준은 결과인 B이다.

NoteBase

문 3.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표(L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류 배열은 분류 이론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계층 구조를 지닌다.

② 비십진식으로 전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규모 도서관에 적합하다.

③ 초기에는 일관분류표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어 표준분류표의 성격을 지닌다.

④ LCC 기호 구성에 활용되는 커터기호(Cutter number)는 특정 주제의 세목을 전개하여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LCC의 주류 배열은 추상적인 분류 이론보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실제 장서와 운영상의 필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분류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 계층 구조라고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LCC는 **실제 장서의 분류와 배열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분류 이론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계층 구조를 지닌다'는 표현은 장서와 실무상의 필요를 바탕으로 주류를 배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하위 주제를 상위 주제 아래에 배치하는 계층 관계가 일부 존재하지만, 그것이 주류 전체가 일관된 분류 이론에서 도출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LCC는 각 단계를 반드시 10개씩 나누는 십진식이 아니라, **문자와 숫자를 결합하는 비십진식**이다. 주류와 하위 분야를 문자로 구별하고 숫자 범위와 세목을 활용하여 주제를 상세하게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분 능력은 장서량이 많고 전문 분야의 자료가 풍부한 대규모 도서관에 적합하다.

③ O: 일관분류표는 **특정 한 도서관의 장서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분류표**이다. LCC도 처음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장서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이후 다른 대학도서관과 연구도서관 등에서도 널리 채택되면서 여러 도서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분류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④ O: 커터기호는 문자와 숫자를 결합하여 명칭의 알파벳순 배열을 나타낸다. LCC에서는 저자 등을 구별하는 용도 외에 **특정 주제의 세목을 알파벳순으로 전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커터기호를 저자 구별에만 쓰이는 기호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4. KDC 제6판의 분류기호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① 061

② 071

③ 911

④ 981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911은 910 '아시아 역사'를 한국으로 세분한 기호이므로, 마지막 1은 **한국**을 뜻한다. 다른 세 기호의 마지막 1은 **아시아**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분류기호의 마지막 숫자는 그 숫자가 놓인 계층에서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지 비교해야 한다. 같은 1이라도 상위 항목이 다르면 가리키는 지역의 범위가 달라진다.

① 061: 060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연구기관'을 지역별로 나눈 것으로, 아시아의 일반 학회·단체 등을 나타낸다. 밑줄 친 1은 **아시아**를 뜻한다.

② 071: 070 '신문, 저널리즘'을 지역별로 나눈 것으로, 아시아의 신문·저널리즘을 나타낸다. 밑줄 친 1은 **아시아**를 뜻한다.

③ 911: 910 '아시아 역사' 아래의 한국사를 나타낸다. 상위 항목에서 이미 아시아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밑줄 친 1은 아시아 안의 국가인 **한국**을 뜻한다.

④ 981: 980 '지리'를 지역별로 나눈 것으로, 아시아지리를 나타낸다. 밑줄 친 1은 **아시아**를 뜻한다.

따라서 ①·②·④의 밑줄 친 1은 아시아를, ③의 밑줄 친 1은 한국을 나타내므로 의미가 다른 것은 ③이다.

NoteBase

문 5.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23)으로 레코드를 작성할 때, (가)와 (나)에 들어갈 표시기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245	▼a(아카데미 수상특집) 영화 기생충, 세계를 매혹하다 ▼h[비디오녹화자료] / ▼dKBS Media [편]
(가)	▼a비디오디스크 1매 (약 60분) :▼b유성, 천연색 ;▼c12 cm
(나)	▼aKBS미디어

① (가): 300
(나): 710

② (가): 337
(나): 710

③ (가): 300
(나): 590

④ (가): 337
(나): 59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수량·재생시간·음향·색채·크기를 기술하는 필드는 **300 형태사항**이다. 책임표시에 나온 단체명 'KBS미디어'를 검색 접근점으로 제공할 때는 **710 부출표목-단체명**을 사용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300 — 형태사항: '비디오디스크 1매 (약 60분)'는 특정자료종별·수량·재생시간이므로 ▼a에, '유성, 천연색'은 기타 물리적 특성이므로 ▼b에, '12 cm'는 크기이므로 ▼c에 기술한다. 이처럼 **자료의 구체적인 물리적 특성**을 함께 기술하는 필드가 300이다. 337은 내용을 보거나 재생하는 데 필요한 매개 장치의 일반적 유형을 나타내는 매체유형 필드이므로 이 내용을 넣는 필드와 구별된다.

(나) 710 — 부출표목-단체명: 245의 책임표시 'KBS Media [편]'에 대응하는 단체명 'KBS미디어'를 별도의 검색 접근점으로 제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단체명을 부출표목으로 기술**하는 710을 사용하며, ▼a에 단체명의 기본요소를 기록한다. 590은 소장본의 낙장·파손 등 해당 기관 소장본에 관한 로컬정보를 기술하는 소장본 주기이므로 이 단체명을 기술할 필드가 아니다.

(가)는 300, (나)는 710이므로 ①의 연결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FRBR의 이용자 과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탐색(Find) ㄴ. 식별(Identify)
ㄷ. 선정(Select) ㄹ. 탐험(Explore)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ㄹ의 탐험(Explore)은 **FRBR의 이용자 과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FRBR의 네 과업 중 자료를 입수하거나 접근하는 과업은 **획득(Obtain)**이다.

보기별 해설

ㄱ. O: 탐색(Find)은 자료의 속성이나 관계를 검색 조건으로 삼아 **해당하는 자료를 찾는** 과업이다. 예를 들어 저자명이나 주제로 목록을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ㄴ. O: 식별(Identify)은 검색된 자료가 **찾으려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비슷한 자료들을 구별하는 과업이다. 제목이 같은 자료들의 저자와 판사항을 대조하여 원하는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ㄷ. O: 선정(Select)은 자료의 내용이나 물리적 형식 등이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선택하거나 제외**하는 과업이다. 예를 들어 검색된 자료 가운데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자료를 고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ㄹ. X: 탐험(Explore)은 FRBR의 네 이용자 과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FRBR의 이용자 과업은 탐색·식별·선정·**획득(Obtain)**이며, 획득은 대출·구입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전자자료에 접근하는 과업이다. 탐험은 자원 사이의 관계를 따라 관련 자원을 발견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과업으로, IFLA LRM의 이용자 과업에 포함된다.

FRBR의 이용자 과업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ㄴ·ㄷ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23)으로 레코드를 작성할 때, 필드의 기술이 옳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표제면>

딥러닝:
반드시 알아야 할
101가지 사항들

스티브 하터 저
송인석 역

<판권기>

원제: Deep Learning
101 Things You Must Know
by Steve Harter

딥러닝
2021년 9월 5일 1판 1쇄 인쇄
2021년 9월 10일 1판 1쇄 발행

발행인 | 이종석
발행처 | 도서출판 청람
서울특별시 ○○구 ○○로 239

① 245 ▼a딥러닝 : ▼b반드시 알아야 할 101가지 사항들 = ▼xDeep learning : 101 things you must know / ▼d스티브 하터; ▼e송인석

② 260 ▼a서울 : ▼b도서출판 청람, ▼c2021

③ 700 ▼a하터, 스티브

④ 711 ▼a송인석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저자 스티브 하터의 이름은 개인명 접근점을 만드는 **700 필드**에 기록한다. 서양인의 이름을 성부터 배열하고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두므로 '700 ▼a하터, 스티브'로 기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판권기에 '원제'로 제시된 영어 표제는 번역의 바탕이 된 원저작의 **원표제**이므로 245 필드의 ▼x에 대등표제로 넣지 않고 246 필드에 기술한다. 245에는 '245 ▼a딥러닝 : ▼b반드시 알아야 할 101가지 사항들 / ▼d스티브 하터 저 ; ▼e송인석 역'으로 본표제·표제관련정보·책임표시를 기록한다. 표제면에 있는 역할어 '저'와 '역'도 책임표시에 포함한다.

② X: 260 필드는 발행사항을 기록하며 ▼a는 발행지, ▼b는 발행처, ▼c는 발행년이다. 발행처명에 붙은 업종명 **'도서출판'은 생략**하므로 '260 ▼a서울 : ▼b청람, ▼c2021'로 고친다. 판권기의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발행년은 2021년으로 기술한다.

③ O: 700은 **부출표목－개인명** 필드로, 저자 등의 개인명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접근점을 기록한다. 스티브 하터는 이 자료의 저자이며, 서양인의 이름은 성 '하터'를 앞에 놓고 쉼표 뒤에 이름 '스티브'를 적으므로 '700 ▼a하터, 스티브'로 기술한다.

④ X: 711은 **부출표목－회의명** 필드이므로 개인인 번역자 송인석을 기록할 수 없다. 번역자도 개인명 접근점으로 기록하므로 '700 ▼a송인석'으로 고친다. 개인명에 사용하는 700과 회의명에 사용하는 711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8.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23)으로 레코드를 작성할 때, 특정자료의 자료특성사항 기술이 옳지 않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254 ▼a연습곡악보

② 255 ▼a축척 1:50,000

③ 256 ▼a전자 데이터 (550레코드)

④ 257 ▼a1976년 창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1976년 창간'은 연속간행물의 창간 시기를 나타내므로 **362(권·연차, 연월차 사항)** 필드에 기술한다. 257 필드는 **제작국명**을 기술하는 곳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254 필드는 인쇄되거나 필사된 악보의 **표현형식**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a에 총보, 파트보, 연습곡악보 등 동일 저작의 상이한 악보를 구별하는 형식을 적으므로 '254 ▼a연습곡악보'는 적절하다.

② O: 255 필드는 축척, 도법, 경위도 등 지도제작의 수치데이터를 기술한다. 이 가운데 식별기호 ▼a는 **축척표시**에 사용하므로 '255 ▼a축척 1:50,000'은 적절하다.

③ O: 256 필드는 컴퓨터파일의 유형과 레코드 수 등 파일의 특성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a에 파일 유형인 '전자 데이터'를 적고, **레코드 수는 원괄호로 묶어** 나타내므로 '256 ▼a전자 데이터 (550레코드)'는 적절하다.

④ X: 257 필드는 제작국명을 기술한다. '1976년 창간'은 국가명이 아니라 연속간행물의 창간 연도에 관한 정보이므로 **362(권·연차, 연월차 사항)** 필드의 ▼a에 기술해야 한다.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를 제외하면 '362 ▼a1976년 창간'으로 고친다.

NoteBase

문 9.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23)의 주제명부출표목에서 일반 주제명과 지명의 표시기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일반주제명: 650, 지명: 651

② 일반주제명: 650, 지명: 653

③ 일반주제명: 651, 지명: 653

④ 일반주제명: 651, 지명: 654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KORMARC의 주제명부출표목은 표목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주제명은 650**, **지명은 651**에 기술한다. 653은 비통제 색인어, 654는 패싯 주제어를 위한 필드이다.

대응 관계 해설

일반주제명 → 650: 자료의 주제를 일반적인 개념이나 사건·대상 등의 용어로 나타낸 주제명부출표목을 기술한다. 주제명표목표나 시소러스에 근거하여 주제 접근점을 부여하는 필드이다. **651은 지명 표목**에 사용하는 기호이므로 일반주제명에 대응시키면 안 된다.

지명 → 651: 주제명부출표목으로 사용된 국가·도시·산·강 등의 지명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경주—역사'처럼 지명을 표목으로 삼고 그 뒤에 주제세목을 붙인 경우에도 651을 사용한다. 653은 표준 주제명표목표나 시소러스의 작성 규칙에 따르지 않은 **비통제 색인어**를, 654는 패싯어휘집에 근거하여 용어의 패싯·계층 등을 구분한 **패싯 주제어**를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이 문항의 지명 표시기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제명 650과 지명 651의 대응을 함께 만족하는 조합은 ①이다.

NoteBase

문 10. DDC 제23판의 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보조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05	Groups of people
.8	Ethnic and national groups
.81-.89	Specific ethnic and national groups Add to base number 305.8 notation 1-9 from (가), e.g., comprehensive works on Jews 305.8924
421-428	Subdivisions of English Except for modifications shown under specific entries, add to base number 42 notation 1-8 from (나), e.g., phonology of English 421.5

① (가): Table 2, (나): Table 4
② (가): Table 2, (나): Table 6
③ (가): Table 5, (나): Table 4
④ (가): Table 5, (나): Table 6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민족·국민 집단을 나타내는 번호는 **Table 5**에서, 특정 언어의 음운론·문법 등 세부 분야를 나타내는 번호는 **Table 4**에서 가져온다. Table 6은 어떤 언어인지를 구별하는 보조표이므로 언어 내부의 세부 분야를 나타내는 Table 4와 다르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Table 5: 305.8은 민족·국민 집단을 다루며, 발췌문의 .81–.89는 특정 민족·국민 집단을 세분한다. 따라서 기본번호 305.8 뒤에 **민족·국민 집단별 기호**를 제공하는 Table 5의 해당 기호를 붙인다. 제시된 유대인에 관한 종합 저작은 유대인의 기호 924를 결합하여 305.8924가 된다. Table 2는 지리적 지역·역사적 시대·전기를 위한 보조표이므로 여기서 요구하는 집단별 기호의 출처가 아니다.

(나) Table 4: 421–428은 영어의 세부 분야를 나타낸다. 특정 항목에 별도의 수정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번호 42 뒤에 **개별 언어 및 어족의 세구분**을 제공하는 Table 4의 기호를 붙인다. 제시된 영어 음운론은 음운론의 기호 15를 42 뒤에 결합하고 셋째 자리 다음에 소수점을 두어 421.5가 된다. Table 6은 영어·독일어 등 언어 자체를 구별하므로, 이미 영어로 정해진 항목을 음운론 등으로 세분하는 이 지시에는 Table 4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는 Table 5, (나)는 Table 4의 연결이며,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한국목록규칙 제4판 기술총칙에서 명시한 자료유형에 대한 기술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제본의 경우 해당 복제물 원본의 자료유형을 기재한다.

② 인쇄자료 중 문자로 쓰여진 자료(단행본, 고서와 고문서, 인쇄 형식의 연속간행물 등)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이상의 자료의 유형을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주된 유형을 기재하고, 나머지를 원괄호(( ))로 묶어 부기할 수 있다.

④ 자료유형은 본표제 다음에 각괄호([ ])로 묶어 기재하며, 종합표제 대신 개별저작의 표제를 기술한 경우에는 마지막 표제 다음에 기재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복제본의 자료유형은 원본이 아니라 **복제물 자체의 유형**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지도를 슬라이드로 복제했다면 원본의 지도 유형이 아닌 슬라이드로 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복제본에는 **해당 복제물 자체의 자료유형**을 기재한다. 목록으로 기술하는 대상이 복제물이므로 원본의 유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도를 슬라이드로 복제한 경우에는 슬라이드로 자료유형을 표시한다. 선지의 '복제물 원본의 자료유형'은 '복제물의 자료유형'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단행본, 고서와 고문서, 인쇄 형식의 연속간행물 등 **인쇄자료 중 문자로 쓰인 자료**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모든 인쇄자료에 적용되는 생략 규정이 아니라, 문자로 쓰인 인쇄자료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③ O: 두 가지 이상의 자료유형을 기술할 필요가 있으면 주된 유형을 먼저 기재하고, 나머지는 **원괄호로 묶어 부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자로 된 악보는 '[악보(점자자료)]'처럼 주된 유형인 악보 뒤에 점자자료를 덧붙여 표시할 수 있다.

④ O: 이 문항에서 묻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 기술총칙의 자료유형 기술방법은 본표제 다음에 자료유형을 각괄호로 묶어 기재하는 것이다. 종합표제 대신 여러 개별저작의 표제를 기술한 경우에는 **마지막 표제 다음**에 자료유형을 기재한다. 바깥의 각괄호는 자료유형표시를 나타내며, ③에서 부기하는 유형을 묶는 원괄호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12. 도서기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서기호는 분류기호에 이어 배가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인 동시에 순차적 배가를 가능하게 한다.

②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표(제5표)를 적용할 때, 저자가 다른 자료임에도 동일한 분류기호 내에서 도서기호가 중복되면 저작기호를 조정하여 구별한다.

③ 새연대순도서기호표를 적용할 때, 전기와 인물평에 관한 도서는 자모순 도서기호 또는 알파벳순 도서기호를 부여한 다음에 연대기호를 부기한다.

④ 수입순 기호법은 기호 부여가 간편하고 모든 자료의 완벽한 개별화가 가능하나, 비논리적 군집성과 순차결정의 우연성으로 인해 체계적 군집이 불가능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저작기호를 조정'은 **'저자기호를 조정'**으로 고쳐야 한다. 한글순도서기호표 제5표에서는 저자가 다른 자료의 기호 중복을 저자기호에서 구별하며, 동일 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을 구별할 때 저작기호를 조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분류기호는 자료를 주제에 따라 모아 주지만, 같은 분류기호를 가진 개별 자료의 배열 순서까지 정하지는 못한다. 도서기호는 **동일 분류기호 안에서 자료를 구별하고 배열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분류기호에 이어 배가위치를 결정하고 순차적 배가를 가능하게 한다.

② X: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표 제5표에서 저자가 다른 자료의 도서기호가 동일 분류기호 안에서 중복되면 **저자기호를 조정**하여 구별한다. 저자기호는 저자명을 기호화한 부분이고, 저작기호는 같은 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을 구별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동일 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에서 기호가 중복될 때 저작기호를 조정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③ O: 새연대순도서기호표에서 전기와 인물평에 관한 도서는 **자모순 또는 알파벳순 도서기호를 먼저 부여**하고 그 뒤에 연대기호를 덧붙인다. 인물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모은 뒤 그 안에서 연대에 따른 배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④ O: 수입순 기호법은 **자료가 들어온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일련번호를 부여하므로 기호 부여가 간편하고 개별 자료를 구별하기 쉽다. 그러나 번호의 선후는 저자나 저작의 관계가 아니라 입수 시점에 좌우된다. 따라서 같은 저자의 관련 저작도 입수 순서에 따라 흩어질 수 있어, 수입순 기호 자체로는 체계적인 군집을 만들 수 없다.

NoteBase

문 13. DDC 제23판의 본표와 보조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2인 이상의 작가가 쓴 『20세기 미국문학전집』의 분류기호로 옳은 것은?

810 American literature in English .1–.9 Standard subdivisions; collections in more than one form; history, description, critical appraisal of works in more than one form of American literature in English Add to base number 810 the numbers following —0 in notation 01–09 from Table 3B
PERIOD TABLE FOR AMERICAN LITERATURE IN ENGLISH … 5 1900–1999 6 2000–
Table 3B. Subdivisions for Works by or about More than One Author —08 Collections of literary texts in more than one form —08001–08009 Specific periods Add to base number —0800 notation from the period table for the specific literature

① 810.08005

② 810.0806

③ 810.8005

④ 810.806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본표 810에는 보조표 3B 기호의 **맨 앞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붙인다. 전집의 시대별 기호 —0800에 20세기의 시대기호 5를 붙인 뒤 이 지시를 적용하면 810.8005가 된다.

NoteBase

공통 해설

이 문항의 분류기호는 본표 810의 합성 지시에 따라 만든다. 810은 영어로 된 미국문학이며, 두 사람 이상 작가의 작품을 다루는 보조표 3B를 적용한다. 본표에는 보조표 3B의 01~09에서 **—0 다음에 오는 숫자만** 810에 부가하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표 기호를 그대로 전부 붙이는 것은 아니다.

보조표 3B에서 여러 문학형식의 작품을 모은 전집은 —08이며, 이를 특정 시대별로 세분할 때는 —0800에 해당 문학의 시대기호를 붙인다. 제시된 미국문학 시대구분표에서 1900~1999는 5이므로, 『20세기 미국문학전집』에 적용할 보조표 기호는 —08005이다.

이 기호에서 맨 앞 0을 제외한 8005를 본표 810에 붙이면 분류기호는 810.8005가 된다. 810.08005처럼 맨 앞 0까지 붙이면 본표의 합성 지시를 어긴다. 또한 제시된 시대구분표의 **6은 2000년 이후**를 뜻하므로, 끝에 6을 붙인 기호는 이 전집의 시대 조건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단행본 기술에 적용되는 정보원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본문 (나) 권두
(다) 이표제면 (라) 책등

① (가), (나), (다), (라)
② (나), (가), (다), (라)
③ (다), (가), (라), (나)
④ (다), (나), (라), (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이표제면은 **제1순위 정보원군**에 속하고, 본문은 서문·후기·부록 등과 함께 뒤의 순위에 놓인다. 그 사이에서는 **권두가 책등보다 우선**한다.

올바른 순서

(다) 이표제면 → (나) 권두 → (라) 책등 → (가) 본문

(다) 이표제면: 한국목록규칙 제4판은 단행본 기술에서 표제면·판권기·이표제면·표지를 **제1순위 정보원군**으로 정한다. 따라서 제시된 네 정보원 중에서는 이표제면을 가장 먼저 참조한다.

(나) 권두: 약표제면과 함께 제2순위 정보원군에 속한다. 이표제면이 포함된 제1순위 정보원군 다음에 참조하며, 책등보다 우선한다.

(라) 책등: 책을 묶은 등 부분으로, 제3순위 정보원이다. 약표제면·권두 다음에 참조하므로 권두보다 뒤에 놓인다.

(가) 본문: 서문·후기·부록 등 그 도서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제4순위 정보원군**에 속한다. 책등 다음에 참조하므로 제시된 정보원 중에서는 가장 뒤에 놓인다.

NoteBase

문 15. KDC 제6판의 본표와 표준구분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공연법」의 분류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360 법률(法律), 법학(法學)
368 기타 제법(諸法)
특수 법률 및 법령은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도서관에 따라 -023(법령 및 규정)을 부가할 수 있다.
예: 교통법 326.3023
별법: 특수법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는 도서관에서는 368 다음에 0을 부가하고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할 수 있다.
예: 교육법 368.037
680 공연예술, 매체예술
비디오아트와 행위예술을 포함한다.
.1 철학, 이론, 미학
.6 공연예술 단체
.7 공연예술 지도법, 연구법 및 교육, 연구자료
표준구분표
- 01 철학 및 이론
- 02 잡저
- 023 법령 및 규정
- 06 각종 단체, 조직(학회, 단체, 협회, 기관, 회의) 및 경영

① 368.068, 680.023
② 368.068, 680.23
③ 368.23, 680.023
④ 368.68, 680.23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주제별로 분류할 때는 공연예술 680의 끝자리 0을 생략하고 **법령 및 규정의 표준구분 -023**을 붙인다. 특수법을 한곳에 모으는 별법에서는 **368 다음에 넣는 0**과 공연예술을 나타내는 주제기호 68을 결합한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별법 적용 — 368.068: 특수법을 한곳에 모을 필요가 있는 도서관은 지문의 별법에 따라 368 다음에 0을 붙인 뒤 주제구분한다. 공연예술 680의 끝자리 0을 생략한 68을 이어 붙이면 368.068이 된다. 교육법의 예시인 368.037과 같은 구성 방식이다. 이때 **368과 주제기호 사이의 0은 생략하지 않는다**. 따라서 368.68은 필요한 0이 빠진 기호이고, 368.23은 공연예술의 주제기호를 반영하지 못한 기호이다.

본표 적용 — 680.23: 특수 법률 및 법령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하므로 '공연법'은 공연예술 680을 기준으로 한다. 도서관에 따라 법령 및 규정을 나타내는 표준구분 -023을 부가할 수 있다. 이때 **강목 680의 형식적인 끝자리 0을 생략**한 68에 023을 이어 붙이고, 세 번째 숫자 뒤에 소수점을 두면 680.23이 된다. 680에 023을 그대로 붙인 680.023은 0이 하나 더 들어간 기호이다.

별법의 368.068과 본표의 680.23을 짝지은 조합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도서관 참조모형(LR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체, 속성, 관계를 근간으로 한다.

② 기존 3개로 구분된 FR모형(FRBR, FRAD, FRSAD)을 대체하고자 개발되었다.

③ 링크드 데이터 환경에서 서지데이터 사용을 지원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④ 레(Res)의 직접적인 하위 클래스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에이전트, 노멘 총 6개의 개체가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Res의 직접 하위 클래스는 선지에 제시된 6개에 **장소(Place)와 시간범위(Time-span)**를 더한 총 8개이다. 개인과 집합적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의 하위 클래스이므로 Res의 직접 하위 클래스와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LRM은 서지정보를 **개체·속성·관계**로 표현하는 개념모형이다. 개체는 기술의 대상이고, 속성은 그 대상의 특성이며, 관계는 대상들을 연결한다. 예를 들어 저작과 에이전트는 개체이고, 저작과 그 저작을 창작한 에이전트 사이에는 창작 관계가 성립한다.

② O: LRM은 별도로 개발된 **FRBR·FRAD·FRSAD를 하나의 일관된 모형으로 통합**하여 대체하고자 개발되었다. 세 모형 사이의 범위와 관점 차이에서 생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체·속성·관계 등을 재검토하고 조정하였다.

③ O: LRM은 **링크드 데이터 환경에서 서지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서지정보의 대상을 개체로 구분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는 구조는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여 탐색하는 기반이 된다.

④ X: Res는 LRM의 최상위 개체이며, 직접 하위 클래스는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에이전트·노멘·장소·시간범위의 총 8개이다. 선지는 **장소와 시간범위를 빠뜨려 6개로 제시**하였다. 개인(Person)과 집합적 에이전트(Collective Agent)는 에이전트의 직접 하위 클래스이므로, Res에 대해서는 간접 하위 클래스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단행본 기술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등표제는 표제관련정보 다음에 기재한다.

② 자료의 으뜸정보원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취한 책임표시는 원괄호 속에 기재한다.

③ 본표제나 표제관련정보 중에 포함된 저작자명은 이를 책임표시에 다시 기재하지 않는다.

④ 별표제는 본표제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그 말미에 '일명'(一名), 'or' 또는 이의 상등어를 앞세워 적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별표제는 '일명', 'or' 등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표제로, **본표제의 일부분**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어를 앞세워 본표제의 말미에 이어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대등표제는 본표제와 다른 언어나 문자로 표시된 표제이다. 표제관련정보 다음이 아니라 **표제관련정보 앞에** 기재하며, 기본적인 관계는 '본표제 = 대등표제 : 표제관련정보'이다.

② X: 자료의 으뜸정보원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취한 책임표시는 **각괄호([ ])** 속에 기재한다. 각괄호는 해당 정보가 으뜸정보원 밖에서 얻어진 것임을 나타내므로, 원괄호로 묶는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③ X: 본표제나 표제관련정보에 저작자명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를 **책임표시에 다시 기재한다**. 표제에 이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의 책임 주체를 기록하는 별도의 기술요소인 책임표시를 생략하지 않는다.

④ O: 별표제는 본표제에 '일명'(一名), 'or' 또는 이에 해당하는 말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표제이다. 이를 **본표제의 일부분으로 취급**하여 본표제의 말미에 연결어를 앞세워 적는다. 표제를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어구인 표제관련정보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18. 한국도서번호의 부가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 5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② 독자대상기호, 발행형태기호, 내용분류기호로 구성된다.

③ 내용분류기호의 제3행은 내용분류기호표에서 해당 주제의 번호를 선택한다.

④ 발행형태기호의 예비기호인 9는 발행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발행형태기호의 9는 **예비기호**이므로 발행처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발행처는 해당 출판물의 형태에 맞는 기호를 발행형태기호표에서 선택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부가기호는 독자대상기호 1자리, 발행형태기호 1자리, 내용분류기호 3자리로 이루어진 **총 5자리**의 기호이다.

② O: 독자대상기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도서인지, 발행형태기호는 어떤 형태로 발행되는지, 내용분류기호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를 나타낸다. 부가기호의 배열은 **독자대상기호 → 발행형태기호 → 내용분류기호** 순이다.

③ O: 부가기호의 제3행은 내용분류기호가 시작되는 자리로, 내용분류기호표의 **세로줄에서 해당 주제의 번호 한 자리**를 선택한다. 제4행은 그 주제의 세부 분야를 가로줄에서 선택하고, 제5행은 0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행'은 부가기호의 각 숫자 자리를 뜻한다.

④ X: 발행형태기호 9는 예비기호로 남겨 둔 번호이므로 **발행처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예비'는 발행처가 자유롭게 용도를 정해 쓰라는 의미가 아니다. 해당 출판물에 적용되는 발행형태기호를 기호표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NoteBase

문 19. Cutter-Sanborn 세 자리 저자기호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A Biography of Abraham Lincoln / by Roy Basler』의 도서기호는?

Basi	311	Lape	Lily	731	Moly
Basili	312	Laph	Lim	732	Mom
Basin	313	Lapi	Limb	733	Momm
Basir	314	Lapl	Limi	734	Mon
Bask	315	Lapo	Lin	735	Monal
Basn	316	Lapp	Linc	736	Monas
Bass	317	Lapr	Lincoln, G.	737	Monc
Basse	318	Lar	Lincoln, M.	738	Moncl
Basset	319	Larc	Lincoln, S.	739	Moncr

① B315a

② B316l

③ L736b

④ L737b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개인 전기는 **피전자인 Abraham Lincoln**을 기준으로 기호를 정하고, 뒤에 **저자 성의 첫 글자 b**를 붙인다.
표에서 Lincoln, A.에 적용되는 번호는 736이므로 도서기호는 L736b가 된다.

NoteBase

공통 해설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로 개인 전기의 도서기호를 만들 때는 **피전자, 즉 전기의 대상 인물의 성명**으로 기호를 정하고, 뒤에 저자 성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붙인다. 이렇게 하면 같은 인물에 관한 전기를 한곳에 모으면서 저자별로 구별할 수 있다. 표에 성명이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면 알파벳순으로 바로 앞선 항목의 번호를 적용한다.

이 책은 Roy Basler가 쓴 Abraham Lincoln의 전기이므로 Lincoln을 기준으로 찾는다. Lincoln, A.는 표의 'Linc(736)'와 'Lincoln, G.(737)' 사이에 놓이므로 **바로 앞 항목의 번호 736**을 적용한다. Lincoln의 첫 글자 L과 결합하면 L736이고, 여기에 저자 Basler의 첫 글자 b를 붙이면 L736b가 된다.

NoteBase

문 20.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23)의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21(반복/재량)은 자료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접근제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② 752(반복/해당시 필수)는 해당자료가 번역자료(수평적 관계)인 경우 원저자료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③ 856(반복/재량)은 전자 자원의 위치 식별과 접근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한다.

④ 930(반복/재량)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명에 대한 부호를 기술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856은 **'전자적 위치 및 접속'** 필드로, 전자 자원이 있는 위치와 그 자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접속 주소나 방법이 여러 가지이면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521은 '이용대상자 주기'로, 자료가 특정 연령·학년·독서 수준 등의 이용자층을 고려하여 간행된 경우 그 대상을 기술한다. 자료에 대한 **접근제한은 506 '이용제한 주기'**에 기술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자료인지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② X: 번역자료에서 원저자료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필드는 **765 '원저저록'**이며, 반복 가능한 해당시 필수 필드이다. 752는 '부출표목 - 계층적 지명'으로, 국가·도·시 등 지명의 계층을 통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하는 반복 가능한 재량 필드이다. 따라서 필드 번호뿐 아니라 752의 적용수준도 잘못 제시했다.

③ O: 856은 '전자적 위치 및 접속'으로, **전자 자원의 위치 식별과 접근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는 반복 가능한 재량 필드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자료의 접속 주소인 URL을 기록하여 해당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위치나 접속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④ X: 자료를 소장한 기관의 부호를 기술하는 필드는 **850 '소장기관'**이다. 930은 '로컬표목 - 통일표제'로, 표목으로 채택된 통일표제와 다르게 자관의 로컬표목으로 부출하는 통일표제를 기술하는 반복 가능한 재량 필드이다. 소장기관을 식별하는 부호와 표제로 자료를 찾게 하는 접근점은 기능이 다르다.

NoteBase